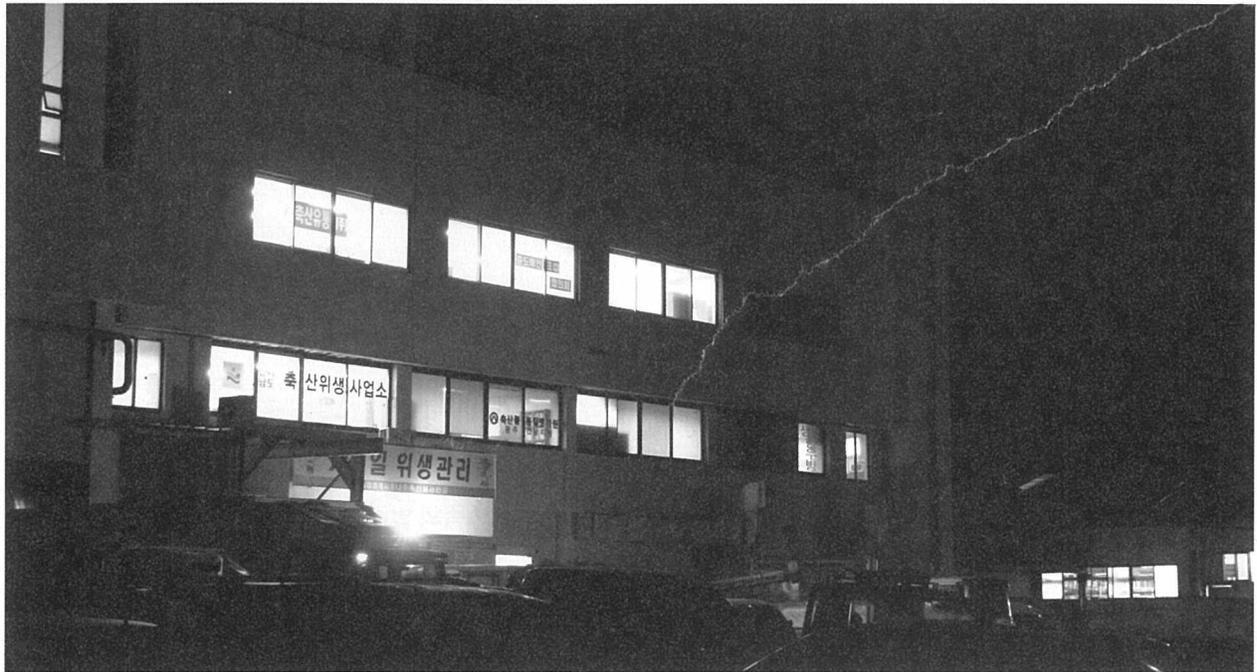


새벽을 여는 지원, 광주전남이랑게요~

㉠ 광주전남지원 편

고객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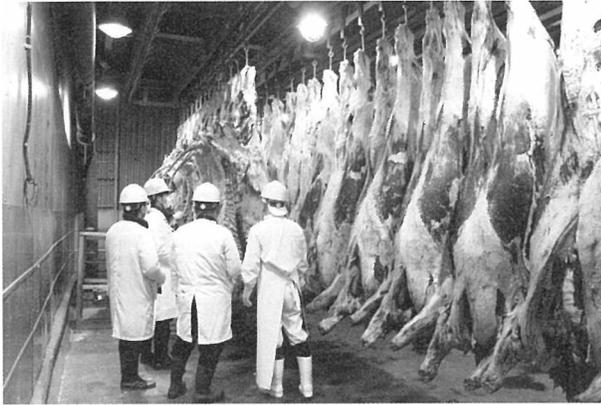
야근 후 아입니다. 출근 중입니다.

아직 해가 뜰 시간도 먼, 한밤중이라고 할 수 있을 새벽 4시를 갓 넘긴 시각.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혹시 못 일어나실까봐 모닝콜 드려봤습니다.” 진작에 하루를 시작한 듯 기운차게 들리는 목소리에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라고 썩썩히 답했지만 부지런한 아침형인간과 잔 듯 만 듯 긴장 속에 자다 깬 올빼미족의 실상은 달랐다.

광주전남지원 취재는 각오가 필요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른 근무시간 때문이다. 가장 빠른 삼호축산(광주)이 05시부터, 농협나주공판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작업장은 05시 30분에서 06시에 근무를 시작한다. 근무시작 시간이 이러니 미리 근무 준비를 하려면 당연히 더 일찍 출근해야 한다. 05시 땡!하면 작업을 시작하는 삼호축산은 늦어도 04시 30분에는 도착해 미리 준비한다.

“우리 직원들은 10시면 다 잔다. 남들보다 생활시계가 4시간 앞서 간다고 보면 된다.” 지원장님과의 인터뷰 후 만난 직원들에게 짚짜미 물어보니 “11년 근무했지만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는 이, “처음에는 8시, 9시면 잤는데, 익숙해지니 이젠 10시 30분에 자게



숨은그림찾기! 익숙하지만 다른 뒤통에는?

됐다.”고 뿌듯하게 말하는 이. 다른 지원에서는 만날 수 없는, 일상과 다른 그러나 일상인 이야기가 신선했다. 물론 들을 때에만.

일출시간 06시 51분이라던 날, 카메라를 들고 들어선 작업장 앞은 사위 구분이 쉽지 않을 만큼 캄캄했다. 그 추위 속에 작업장 외경을 찍겠다고 새벽바람을 오롯이 다 맞고 있다 보니 냉장고 안이나 밖이나 차이가 없었다.

더 생경한 것은 축평원 직원들과 작업장 직원들이 거의 세트마냥 어우러져 있는 상황. 바깥 붙어 서 있는 작업장 직원이 판정을 마치자마자 바로 도체를 옮겨간다. 아침부터 판정하랴 시료 채취하랴 숨 가쁜 상황 속에 덩달아 이리저리 도체를 피해 다니며 취재하느라 혼을 뺐다.

그리고 잔뜩 걸려있는 도체에도 '여가 광주전남지원 아니것소~'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니 사전 절취를 해 행한 우둔과 앞다리(등급판정 제외부위) 쪽, 생고기를 많이 먹는 지역 특성으로, 거의 대부분 절취신청 해 경매하는 것 빼고는 다 절취된 상태로 판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작업장 근무 여건 외로는 국내 오리고기 공급을



닭과는 전혀 다르오리! 게다가 등급오리!!

꼭 잡고 있는 독보적인 오리등급판정 실적을 광주 전남지원의 대표 심벌로 볼 수 있다. 10월 31일 현재 4,984,467수로 2015년 오리고기 누적 판정실적의 62.8%(10월 31일 현재)를 광주전남지원에서 점유하고 있다. 전국 오리 사육량의 6~70%가 광주전남에 집중되어 있는 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AI 발생했을 때 업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도 바로 광주전남이었다. 직격타를 맞은 오리가 휘청하면 많은 물량을 커버하고 있었던 만큼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이는 과거 얘기다. 현재는 평소에도 불샬틈없이 방역을 하며 세심히 관리하고 있기에 AI가 발생해도 가능한 3km 이내만 제한하고 걸린 곳만 제제하니 지원 업무나 오리산업 전체에 큰 피해는 없다. 이에 따라 요즘엔 AI 발병했다고 물량이 크게 줄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만 오리작업장은 판정량이 유동적인 경우가 많아 판정량이 제일 많은 광주전남지원이라지만 평가사가 상주하는 작업장은 한 군데 뿐, 나머지는 출장작업장이다. 여기에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것은



삼삼오오 → → 한기득! 지원사무실에 모인 직원들

전국에 12개 오리작업장이 있는데 이중 5곳이 광주 전남지원에 있으며 광주전남 내 한 곳뿐인 상주작업장이 전국에서도 유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향일까, 광주전남지원은 지원중에서도 제일 많은 23개 작업장을 관할 하지만 출장작업장 수 또한 제일 많은 10곳이다. 이른 출근시간에 많은 작업장수, 지원 내 단합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러나 직원들은 지원 사무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어떻게 보면 군 내무반과도 같은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가능한 사무실에 자주 들어오며 시간이 맞는 사람들은 퇴근 후 배드민턴이나 스크린 골프, 당구 등을 함께 한 후 저녁 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친목을 다진다고 한다. 참 건전한 구조 덕분에 광주전남지원의 배드민턴 실력은 평가원 내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전북지역 출신 2명 외에는 다 광주전남 출신이고, 어쨌든 다 전라도 출신들이라 모두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한다. 겉으로 보나 안에서 보나 참 거시기한 이들도다. **등골정생¹⁵**



신승구 지원장이 이야기하는 우리지원, 그리고 2015년



“2013년 10월 1일에 부임해와 2년 1개월 차다. 이번이 4번째 광주전남지원 근무다. 예전과 비교해보면 아주 많이 달라졌다. 우선, 지원 사무실이 생겼고, 이전 토요일에 돼지작업을 거의 안 한다.(중앙축산 제외) 그래도 여전히 이 지역은 주5일 근무제가 거의 안 된다. 쇠고기가 나가야 하니 토요일에도 근무한다. 그래도 소만 하면 오전이면 끝난다. 서림(단양)은 일요일에도 일한다. 내려온 이후 계속 생각했던 건데, 올해는 특히 주5일 근무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골몰했다. 토요일근무를 줄여나가고자 했으나 마음처럼 안 되더라. 앞으로는 직원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도 주5일제 정착을 위해 더 힘쓰겠다. 이 밖에도 안 그래도 힘든 환경에 인간적으로까지 힘들어지면 더 고충이 클 테니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업무 개인책임제도 그 일환이다. 알아서 할 수 있게 작은 업무까지 다 업무분장을 해 놨다. 간섭하면 할수록 직원들이 피곤해진다. 문제 발생시, 이슈 상황시에만 지원장이 관여하고 안 될 경우에만 책임자를 불러 얘기하지 그 외는 업무분장에 따라 움직인다. 근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객만족도다. 올해 조사방식이 변경된 만큼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준비하고 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다.”